

역학			번호: J - B - 1		
제 목	국문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비만실태와 심혈관 위험인자간의 관련성			
	영문	Obesity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저 자 및 소 속	국문	홍성철,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eong Chul Hong, Sang Yi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 : 최근 청소년 연령층의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청소년들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기에 발현될 뿐아니라 성인비만과 성인병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학생들의 비만실태와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시혈당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만과 심혈관 위험인자 수치간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비만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의 비만이 고등학생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p> <p>2.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1학년 전수를 대상(6,119명)으로 하였으며, 체격 조사는 1999년도 학교 신체검사 자료와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심혈관 위험인자로는 총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혈색소로 하였으며, 대상자 중 646명에 대해 과거 건강 기록부를 열람하여 초등학교때의 비만실태를 조사하였다.</p> <p>3. 결과 :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산출에서는 남녀학생의 각각 12.6%, 13.3%가 비만군으로 분류되었다. 체질량 지수의 경우 남녀 각각 25이상인 경우가 8.7%, 8.5%로 나타났다. 표준체중보다 50%를 초과하는 중증의 비만은 남녀 각각 1.6%, 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만군의 분포가 남학생은 시지역에서 9%, 군지역 10.3%로 시지역에서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시지역 각각 12.9%, 14.2%로 군지역에서 비만율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계열별 차이를 보면 비만율이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학생이 13.9%(실업계:10.1%), 여학생의 경우 실업계 15.1%(인문계:12.1%)로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 수준별로 남학생에서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혈당, 콜레스테롤, 혈색소, r-GTP 수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공복시 혈당과 혈색소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질량 지수와 심혈관 위험인자간의 상관관계에서 남학생은 혈압, 공복시혈당, 콜레스테롤, r-GTP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공복시혈당 외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 중 646명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때의 비만실태를 추적한 결과 초등학교 비만이 고 1학년 비만에 미치는 비교위험도가 남녀 각각 3.77, 2.1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p>4. 결론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비만 유병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과 심혈관 위험인자간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상당수 이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에 적절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p>					